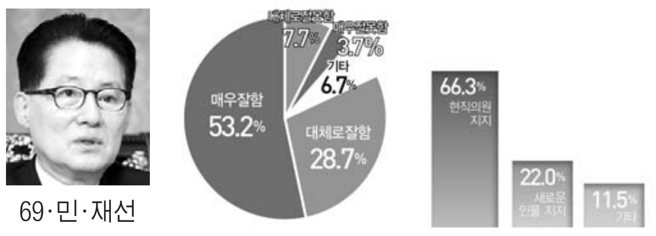
의정 긍정평가 불구 "또 찍겠다" 확실 3명 뿐

박지원 목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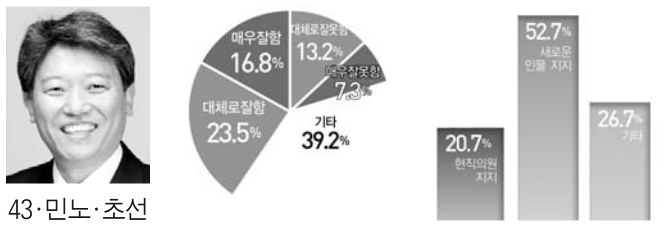


69·민·재선

의정평가·지지율 지역 국회의원 중 최고

의정활동평가에서 잘했다는 응답이 81.9%로 나타난데 이어 차기 총선 지지율도 66.3%를 기록, 광주·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. 이는 박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중앙무대에서 활발한 평가를 펼치고 '금귀월래(金歸月來, 금요일에 지역구로 귀향해 활동한 뒤 월요일에 국회로 복귀)'로 대표되는 성실한 지역구 활동 때문으로 풀이된다.

김선동 순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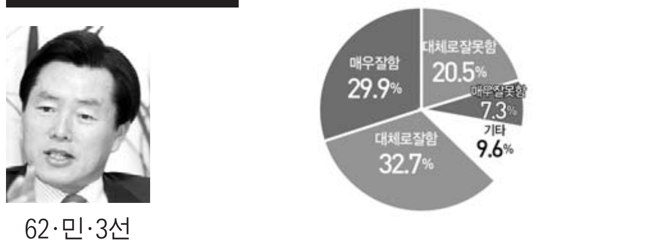


43·민노·초선

유일한 민노당 석달 경력 지지율 21%

전남 국회의원 가운데 내년 총선 지지율(20.7%)과 의정활동평가에서 긍정적 응답(40.3%)이 가장 낮았다.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입, 활동 기간이 짧은데다 야권연대에 반발하는 민심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 특히, 김 의원의 저조한 성적은 차기 총선 광주·전남지역에서의 야권연대 성사 여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

김효석 담양·장성·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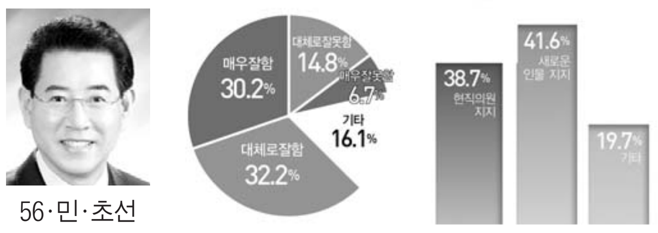


62·민·3선

수도권 출마선언 … 전남 자존심 세울지 관심

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다. 그동안의 의정활동평가는 '잘했다'는 긍정적 평가가 62.6%를 나타내 전남 평균을 웃돌았다.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왔다. 전남을 대표하는 경제통 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났던 김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 도전에 성공해 전남의 자존심을 세울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김영록 해남·완도·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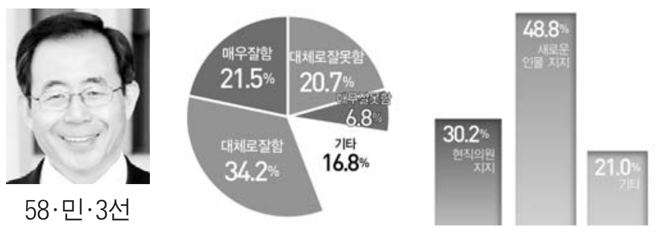


56·민·초선

유권자 가장 많은 해남서 지지율 낮아

차기 총선 지지율(38.7%)보다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(41.6%)이 높게 나왔다. 고향인 완도에서의 총선 지지율이 57.7%를 기록했다. 그러나 해남과 진도의 총선 지지율은 각각 27.6%, 34%로 저조했으며 새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51%, 45.8%로 나타났다. 이에 따라,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가 가장 많은 해남 민심의 향배가 주목된다.

김성곤 여수 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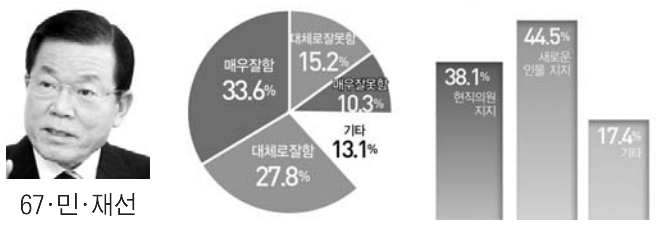


58·민·3선

"野性 약하다" 의정활동·지지율 약세

내년 총선 지지율이 30.2%를 기록한 반면,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8.8%로 나타났다. 의정활동 평가도 긍정적 응답이 55.7%로 전남 평균인 60%에 미치지 못했다. 이는 '도(道)의 정치'로 대변되는 온유한 성향의 정치색이 야당 의원으로서 강하고 투쟁적인 인상을 주지 못한데다 정치적 비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.

최인기 나주·화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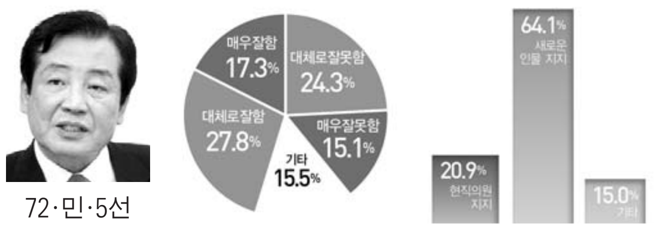


67·민·재선

화순 지지율 나주의 절반 수준에 그쳐

내년 총선 지지율(38%)과 의정활동평가에서의 긍정적 응답(61.4%)은 평균치를 나타냈다. 하지만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44.5%로 만만치 않았다. 고향인 나주에서의 차기 총선 지지의향은 45.3%에 이르렀으나 화순에서의 지지율은 28.4%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. 연령대별로는 20대와 40대의 지지율이 20%대의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.

박상천 고흥·보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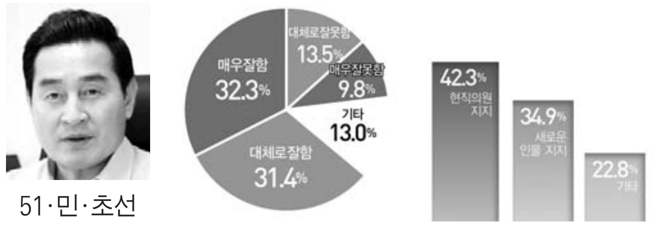


72·민·5선

정치적 비중 줄어 … 64%가 "새인물 지지"

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지지율(20.9%)과 의정활동에서의 긍정 평가(45.1%)가 가장 낮았다. 이를 반영하듯,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64.1%로 전남에서 가장 높았다. 전남 최다선 의원이지만 고령인데다 당내의 정치적 비중이 크게 약화되면서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이윤석 무안·신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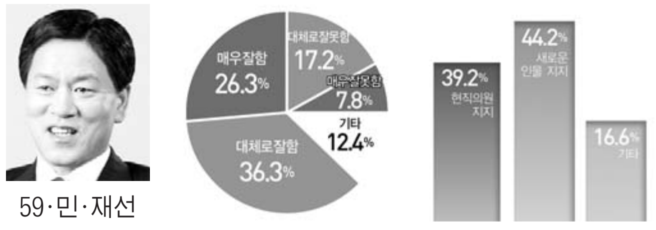


51·민·초선

지지율 50~60대는 높고 30대에선 저조

초선임에도 예상을 깨고 42%대의 차기 총선 지지율을 나타냈다. 반면, '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'는 응답은 34.9%로 집계됐다. 연령대 별로는 50~60대에서 50%대의 높은 총선 지지율을 보인 반면, 30대에서 23%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. 의정활동도 긍정 평가가 63%를 기록, 부정적 평가 23.3%보다 40.4%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.

주승용 여수 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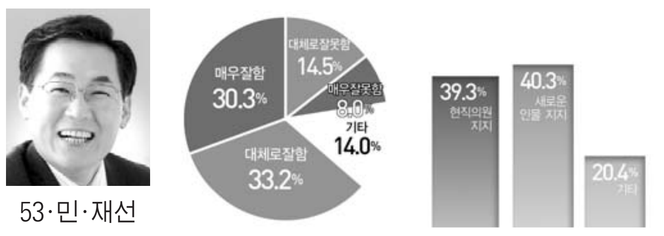


59·민·재선

오현섭 여파 등 민심 예전 같지 않아

내년 총선 지지율은 39.2%를 기록했지만 새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44.2%로 나타나 지역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반영했다. 의정활동평가에서 긍정 응답은 62.6%를 기록, 평균치를 넘어섰다. 하지만 지난해 전남도지사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데다 오현섭 여수시장 구속 여파 등 각종 악재로 인해 과거 '승용불패'라는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.

우윤근 광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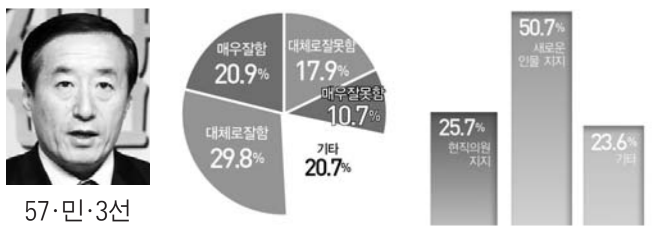


53·민·재선

법사위원장 출신 정치적 리더십은 "글쎄"

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63.5%로 평균을 조금 상회했으며 내년 총선 지지율도 39.3%로, '새 인물 지지' 응답 40.3%와 팽팽하게 나타났다. 광양의 지역적 특성상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점도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으로 정치적 리더십이 약하지 않았느냐는 평가다.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.

유선호 장흥·강진·영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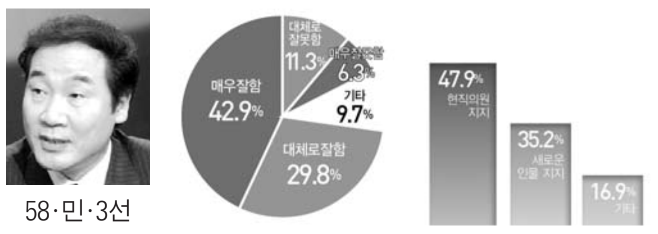


57·민·3선

원내대표 경선 패배 후 지지율 떨어져

내년 총선 지지율이 25.7%로 크게 저조한 반면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두 배에 가까운 50.7%를 기록했다.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 평가도 50%대에 그쳐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.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컷-오프 됐으며 올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석패, 아쉬움을 남겼다. 3선 의원으로 정치적 중량감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.

이낙연 함평·영광·장성



58·민·3선

높은 지지율 업고 도지사 도전 여부 관심

내년 총선 지지율이 47.9%로 전남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. 함평과 영광, 장성에서 모두 45% 이상의 고른 지지율을 보였다. 의정활동평가에서 '잘했다'는 긍정 응답이 72.7%를 기록, '잘 못했다'는 부정적 평가 17.6%보다 55.1%p나 높았다. 특히, 이 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.